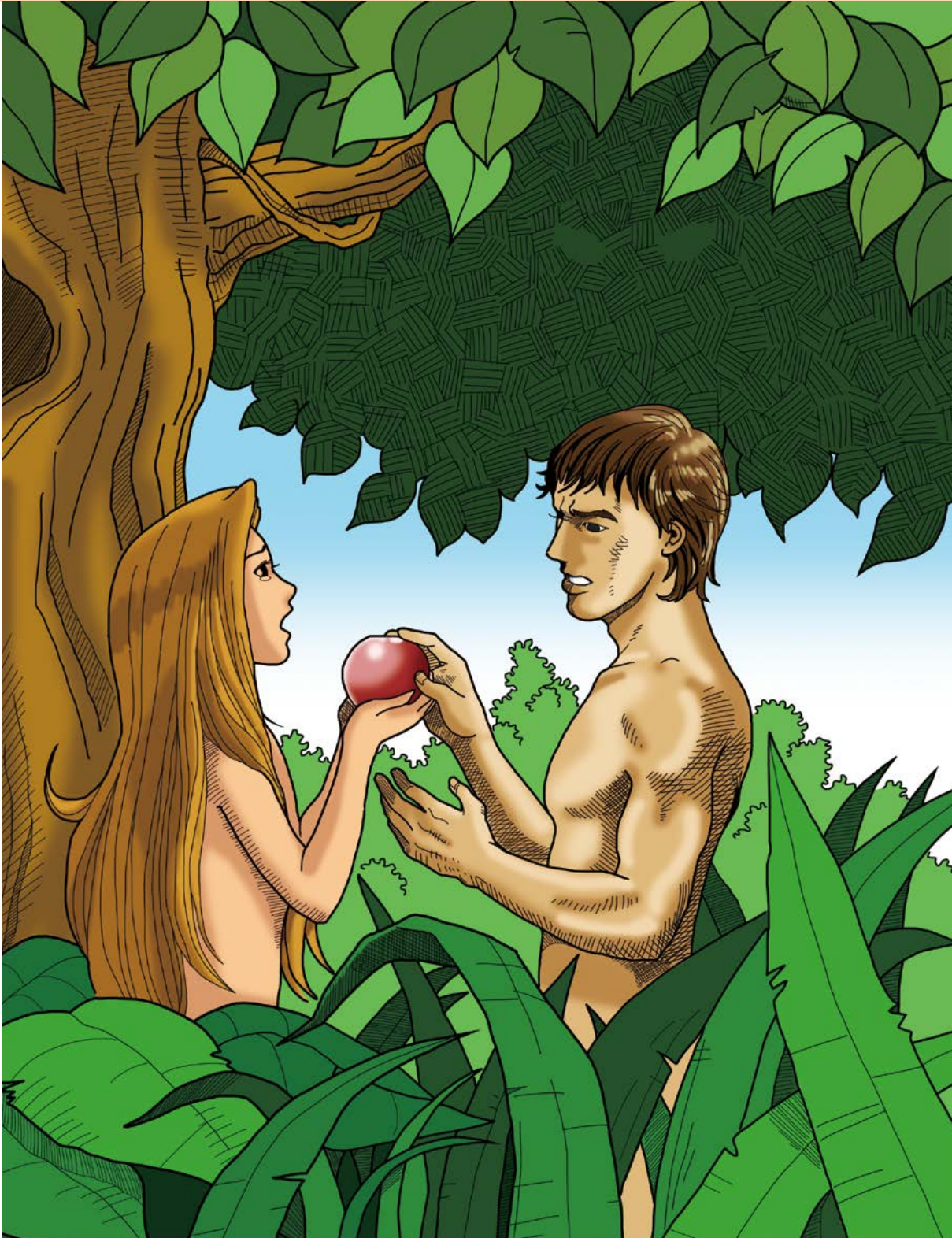


5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15절 ~ 16절, 3장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먹게 하였 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느 날, 들짐승 중에서 가장 ¹⁾교활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여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어.

뱀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거야!

¹⁾교활: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

성경 암송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9)

뱀의 말을 들은 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선악과)를 쳐다보니 매우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뱀이 말한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만 그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떡해요?

하와 아담, 당신도 먹어봐요. 보세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살짝 생각해보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명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입니다. 명규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규는 너무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명규와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거실을 넓게 치워 주셨고 배고플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피자, 햄버거, 탕수육과 음료수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명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규야,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고 거실에서 마음껏 놀아도 되지만 엄마방에 놔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그건 아빠에게 드릴 음식이거든.”



하지만 명규와 친구들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놔두고 엄마방에 있는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는 명규와 친구들이 엄마방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명규가 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명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알아볼까요



에덴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동산은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0~14절 말씀을 보면, 에덴동산에 있었던 네 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강들을 통해 에덴동산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테겔(티그리스), 유브라데(유프라테스)강인데, 그 중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아직도 이라크 지역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혔던 비손 강과 기혼 강도 이 지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에덴동산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지옥은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33)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5)

부모님란

선생님란